

2016. 04. 08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6년 04월 0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

관광정책과장	이기완	2133-2805
MICE산업팀장	권소현	2133-2814
담당자	하명희	2133-2815
서울관광마케팅(주)	김정현	3788-0849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6매

중국 8천 명 싱가포르 1천 명... 해외기업 포상관광 '서울로'

'Reward vacation to Seoul' 8,000 from China, 1,000 from Singapore

- 中 중맥건강산업그룹 8천 명 5월 서울행, 단일 관광객 단체로 역대 최대 규모
- 싱가포르 푸르덴셜사 임직원 4월 12일~16일 단체 포상관광... 한류체험 등 풍성
- 세계 최대 MICE 전시회 IMEX(4월 독일) 필두로 해외마케팅 집중 전개, 시장 선점

- 싱가포르의 푸르덴셜사 임직원 1천 명과 중국의 중맥건강산업그룹 임직원 8천 명이 각각 오는 4월과 5월 단체 포상(인센티브) 관광으로 서울을 찾는다. 특히, 중국 중맥건강산업그룹은 단일 관광객 단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.
- 서울시는 포상관광으로 올해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기업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, 대규모 손님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 여세를 몰아 MICE 관광객 추가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- 싱가포르 푸르덴셜사 임직원은 오는 12일(화)~16일(토) 4박 5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다. 싱가포르는 최근 드라마 <태양의 후예>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등 한류 열기가 뜨거운 만큼, 'K-Culture Meets K-POP'을 주제로 한 한류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.
 - 15일(금)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베스트 K-POP 드레서 선발, 베스트 K-POP 댄서 선발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.
 - 이밖에도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인 경복궁, 청와대,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하고 한복 입기, 김밥 만들기 같은 한국문화 체험에도 나선다.

- 중국 중맥건강산업그룹의 이번 포상관광은 작년 8월 박원순 시장이 베이징 방문 당시 직접 유치했다.(세부 방한 일정은 현재 협의 중) 이 기업은 '10년부터 매년 우수 임직원에게 포상관광을 보내주고 있으며, 박 시장은 '2015 베이징 서울 관광 MICE 설명회' 행사 내 트래블 마트에서 포상관광을 확약 받았다.

- 서울시는 작년 메르스 여파로 위축됐던 마이스(MICE)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시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현지 프로모션과 세일즈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 결과, 아시아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포상관광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다.

- 마이스(MICE)산업은 기업회의(Meeting), 포상관광(Incentive Travel), 국제회의(Convention), 전시회(Exhibition)를 연계한 융복합 관광산업으로, 일반 관광객에 비해 1인당 소비액이 약 1.7배 높고 생산·고용 유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.
-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(주)은 올해 세계 최대 MICE 전시회인 'IMEX 2016'(4월, 독일 프랑크푸르트)와 중국 최대 MICE 전시회인 'CIBTM'(9.7~8, 중국 베이징) 등을 필두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집중 전개,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마이스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.
 - 시는 'IMEX 2016'에서 단독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주요 해외 MICE 주최 단체들을 대상으로 서울 설명회를 열어 최고의 MICE 도시 서울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.

※ IMEX(The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Incentive Travel, Meetings and Events)는 전 세계 150개국 3,500여 개 업체와 78개국 3,952명의 바이어가 참가하고, 14,000여 명이 방문('15년 기준)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MICE 전문 전시회다.

- CIBTM(China Incentive, Business & Meeting Exhibition)에서는 대규모 포상관광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한류 열풍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권에서 기업 회의와 포상관광 단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한 싱가포르와 중국 베이징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.

- 호텔, 여행사 등 서울의 MICE 민관협력체인 '서울MICE얼라이언스' 회원사(21개사),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오는 5월 16일 싱가포르에서 '서울 관광·MICE 설명회'를 개최, 싱가포르 주요 기업 및 현지 여행사 관계자 등 100여 명과 1:1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.
- 한편, 서울에서 외국인 50명, 2박 이상 머무르는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을 하는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 - 종합지원서비스는 ▲ 규모별 관광 프로그램 · 공연 등 맞춤형 인센티브 ▲ 인천공항 환영메시지 ▲ 서울 웰컴키트 ▲ 서울MICE서포터즈 ▲ MICE 특화관광 컨설팅 및 지원 ▲ 프리미엄 해설전문가 ▲ 서울 관광·MICE 홍보부스 운영 ▲ 서울 MICE 카드 지원 ▲ 유니크메뉴 소개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, 서울관광마케팅(주)에서 각 행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.
- 종합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관광마케팅(주)이 운영하는 '24시간 MICE 헬프데스크'에 문의하면 된다.(▲ 국제회의 문의 ☎ 02-3788-0875 ▲ 기업회의·포상관광 문의 ☎ 02-3788-0852 ▲ 원스탑 MICE지원신청 : <http://kr.miceseoul.com/mice/>)
- 김의승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“작년 메르스로 위축됐던 MICE 시장이 서울시의 집중 마케팅과 현지 프로모션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”며 “올해는 서울관광 혁신의 원년으로, 서울이 세계 5대를 넘어 3대 MICE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MICE 행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[붙임 1] IMEX Frankfurt 2015 서울홍보관



[붙임 2] 북경서울관광MICE설명회 서울프레젠테이션 장면 (15.8.3)



[붙임 3] 2015 베이징 설명회 당시 중국 인센티브 관광단체 관계자 면담사진



[붙임 4] 2015 베이징 설명회 당시 중국 인센티브 관광단체 관계자 면담후 기념사진

